발행인 조환길 발행 천주교대구대교구 | 전화 (053)250-3048~9 이메일 jubo@dgca.or.kr 홈페이지 www.daegujubo.or.kr | 편집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11 08
[가해] 제2563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 위령의 날 미사
(2026.11.2. 남산동 교구 성직자묘지)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지혜 6,12-16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1테살 4,13-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5,1-13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포항 들꽃마을 원목 | **이병훈 세례자 요한 신부**

천국 갑시다

평생 노숙인과 살던 최영배 비오 신부는 의사의 전체 임플란트 권고를 마다했습니다. "앞니 하나뿐인 가족이 현관에서 휠체어에 앉아 웃으며 반기더라. 그들도 이빨 없이 사는데..."라며, 이빨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원치 않았지만 간절히 원한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무게를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옛날 세례 시험 첫 질문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났나?"이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났다."라고 답했습니다. 세례 때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합니다. 즉, "영생" 딴말로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주인(主人)은 누구?" 질문에 보통 "평신도"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고, "구원"은 받는 것이며, 주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천주(天主)님" 또는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평신도는 교회 주인"이란 말은 천주님 자녀로 "하늘 나라의 상속자"이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저제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2)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세상에 "자랑"하며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1테살 4,18)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9)
천주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되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어 "함께 천국 갑시다." 대구주보

말씀 KEY WORD

등 | λαμπάς

복음의 '등'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람파스'(λαμπάς)는 '빛나다'라는 뜻의 동사 '람포'(λάμπω)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등'은 혼인 행렬에 쓰이던 횃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혼인 풍습에서 횃불은 밤길을 밝히고 잔치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의 손에는 함께 걸어갈 길을 비추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열 처녀는 모두 잠들었습니다. 슬기로움은 피곤을 모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잠들었어도, 신랑이 오면 언제든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슬기로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신랑을 기다리기보다 기름을 봅니다. 등이 꺼지지 않을 기름,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마음이 뺏겨 기다림을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참된 가치는 저 자신의 끝없는 열정이나 노력보다, 길어진 밤을 감당하는 조용한 인내에서 드러납니다.

제59회 2026년 평신도 주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갈라 1,3)
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전례의 해'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구 장기사목계획에 따라 그 네 번째 단계인 **'이웃사랑의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구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목교서에서 '이웃사랑의 해'를 맞아,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목교서 참조)

예수님께서는 루카 복음(10,29-37)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도움을 주는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곤경에 처한 이웃을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거나,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 망설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오 복음(25,35-40)에서 굶주린 이, 목마른 이, 나그네 된 이, 헐벗은 이, 병든 이, 감옥에 갇힌 "이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한분 한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데(야고 4,15),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은 깊은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이웃사랑의 해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성령 안에서 대화에서 교구 신부님들과 총회장님들을 통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 그 식별의 결과,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부터 권위적이고 서열화된 구조를 탈피하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형제애를 나누어야겠다는 점과,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 그리고 이웃사랑에 어울리는 영적 자세, 함께 걸어가는 여정, 즉, 시노달리타스 영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의 해」 동안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라는 성경 말씀(1요한 4,12)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갈라 6,18)

2026년 11월 8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263

1.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양성교육 3차

- **대상** 교구대회 봉사자 3차 등록인원 • **장소** 교구청 본관 대강의실
- **일시** 수요일 19:30~21:30 (11.11, 11.18, 11.25, 12.2)

2. 홈스테이 2차 신청 마감

- 홈스테이 관련 교육 및 자료는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 각 본당에서는 2차 신청 결과를 11.8(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운동 **46,048,965**단 (2026. 10. 19. 기준)

백년의 기억, 천년의 희망㉔

군종사목의 길을 닦은 대구교구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녕 안드레아



유엔군 장병들이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1951년 10월)

한국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선의 장병들을 돌볼 사제가 절실해졌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의 건의로 1951년 2월 육군본부에 군승과가 설치되면서 군종제도가 출범했고, 2월 28일 천주교 신부 11명이 제1기 군종으로 입대했습니다.

대구대목구는 이 군종사목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했습니다. 1951년 3월 31일 교구 참사회의에서 군종신부 파견을 논의 끝에 제6대 대목구장 최덕홍 요한 주교는 이철희 신부와 신상도 신부를 군종신부로 임명했습니다. 같은 해 최 주교는 천주교 군종신부단의 초대 지도주교(총재주교)를 맡아 군종사목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군종교구 연혁에 따르면 대구교구 김동한 신부는 1954년 첫 해군 군종신부로 입대했습니다. 전쟁터로 향한 사제들은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부상자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신앙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활동 여건은 열악했습니다. 초기 군종신부들은 군 계급이 없는 무보수 촉탁 문관 신분이었고, 군이 제공하는 피복과 식량 외의 경비와 물품은 종교계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군종신부들을 뒷받침할 조직적인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이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이 대구였습니다. 1952년 1월 19일 대구에서 종군신부사업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이 후원회에 많은 신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회비를 모아 군종신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1970년 1월 전국 조직인 가톨릭군종후원회가 발족하기 18년 전, 대구대목구의 신자들이 먼저 군종사목을 뒷받침할 후원조직을 결성한 것입니다. 사제를 전선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이 함께 군종사목의 짐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전쟁터로 향한 사제들과 그들을 뒷받침한 신자들의 헌신은 한국 천주교 군종사목의 초창기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군종신부 파견에서 후원조직 결성에 이르기까지, 대구교구는 한국 천주교 군종사목의 역사에 선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대구주보

믿음의 길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9년)

서품과 로마회의 준비, 만주 방문을 향한 첫걸음



9월 12일(금)

쿠랑 씨와 샤르즈뵈프 신부가 오늘 저녁에 경주에서 돌아왔는데, 둘 다 몹시 지쳐 있다. 교장 신부가 부재중이어서 줄리앙 신부가 어제 도착한 서품자들의 피정을 시작시켰다.

9월 13일(토)

나는 쿠랑 씨와 동행, 3시 49분 기차로 부산에 갔고, 무세 신부는 이 기차로 전라도에서 돌아왔다.

9월 19일(금)

쟌 다르크(Jeanne d'Arc)의 축제를 위해 내가 루앙(Rouen)에 보냈던 조선의 한 단기(團旗)가 마침내 6개월간의 여행 끝에 도착했다. 슐레 주교는 파견 순찰사(Visteur apostolique)로서 곧 묵텐에 올 예정인 게브리앙 주교가 나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것을 나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9월 20일(토)

오늘 아침에 대성당에서 3명의 소품자에게 소품을, 1명에게 부제품을 주었다. 저녁에는 신학교에서 피정을 마무리하는 성체강복을 했다.

9월 22일(월)

11시에 오찬. 베르모렐 신부와 신학교의 신부들이 주교관에 와 있었다. 낮 12시 반 기차를 타고 저녁 8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뮈텔 주교가 역에 나와 있었다.

9월 23일(화)

뮈텔 주교와 함께 로마 회의의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오늘 아침에 영사에게 갔었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저녁에는 뮈텔 주교와 함께 총독 사이토(齊藤) 장군 집에 갔었고 영사의 방문을 받았다. 7시 50분 기차로 첫 제대자 4명, 루블레, 폴리, 페랭, 샤보 신부들이 도착했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캠페인 바로보기

본당 **봉사활동**에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기

사회 정의, 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에 청년들과 **연대**하기

청년들이 교회의 **사회 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과 **나눔**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 보이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필곤 발라바 신부 (1928년 11월 8일 선종) •박춘택 베드로 신부 (2005년 11월 10일 선종)

주간 교구 행사 및 미사안내

11.8 일 | 군위성당 70주년 기념 및 견진미사, 10:30 군위성당(부교구장) | 제2기 더 파파스 2주차, 13:00 교구청 본관 3층 소강의실

9 월 |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월성성당 |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황성성당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계산대성당 | 2대리구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어대성당 |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1:00 신평성당 |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죽도성당 | 2026년 단계별 사제(새사제) 평생교육(13일까지, 한티 피정의집)

10 화 |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30 계산대성당

11 수 |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평화성당

12 목 | 기초공동체위원회 회의, 11:00 교구청 본관 3층 사목국 회의실

13 금 | 임신부 축복미사, 10:00 교구청 본관 3층 소강의실 | 제135차 선택주말 피정(15일까지, 꾸르실료 교육관)

14 토 | 제11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13:3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 2026년 주일학교 4년차 교리교사 연수(15일까지, 무학연수원)

제11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시니어들의 합창 축제에 교구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11.14(토) 13:30~15:30
장 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참가본당 두류, 범어, 장성, 죽전, 효목
찬 조 하늘바라기, 범어 프란체스카나 어린이성가대
문 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 작품전

「 해노비들의 노래 」

일시 11. 17.(화) ~ 27(금) 9:00~18:00 **장소** 교구청 본관 로비

하삼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_ 11. 17(화) 19:30, 교구청 본관 대강의실
토크콘서트에 함께하실 분은 250-3048 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축제

젊은이의 날 2026

11. 21 SAT 10:00-22:00

사전 신청

축제 세부 내용

참가대상
교구 내 19세~39세 신자
(1987~2007년 출생, 이주민 포함)

1부 체험부스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2부 축제 성김대건기념관
* 2부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입장 가능합니다.

렙톤 두 닢 기부 프로젝트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수도회 성소 | 피정 알림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대상: 중1~35세 미만 미혼 남성
문의: (010)6221-3520

배론성지 내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피정 및 대관 신청 안내
내용: 본당 혹은 단체, 필요에 따라 피정 신청 가능(위탁 피정, 자체 피정)
인원: 최대 160명(숙식 제공)
문의: (043)651-4563, https://baeron.or.kr

대구성령쇄신봉사회 특별 치유 대피정
일자: 11.14(토) 신암성당(점심개별준비)
<양일간> 15(일) 월막피정의집 / 1만원 (20세 이하 무료) 강사: 이보파비치 신부 (반야루카관구 프란치스코작은형제회)
문의: (054)954-0951 / (010)5119-5608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치유의숲길: 11.21~23 / 12.4~6
추자도: 11.26~29 / 12.7~9
동백꽃길: 1.15~17 / 1.24~26 / 2.13~15
한라산 눈꽃: 1.29~31 / 2.19~21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2027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1.13(금)까지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5(일반) /
850-3508(교육) / 660-5251~4(특수)
https://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국가건강검진
정성과 세밀함으로 대학병원의 전문의료진과 함께하는 건강검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금 준비하십시오.(암검진은 예약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전인병원
미루었던 건강검진, 지금 받으세요
검진부터 내과·재활·정형·통증·한의과 진료까지
문의: 1688-7667 (9:00~17:30)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

47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설명회: 11.14(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가족, 성인&실버
내용: 청소년·가족캠프, 어학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2 멕시코 과달루페 (8일) 565만원
3.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95만원
3.6 영국, 아일랜드 (11일) 610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M.S.M. 체나콜로 11월 미사 (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회
일시: 11.21(토) 10:00, 삼덕성당
강사: 이성한 베르나르도 신부
문의: (010)9366-9170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한국CPE협회 영남지역 세미나
일시: 11.21(토) 10:00~16:00 / 4만원(점심)
장소: 교구청 본관 로비층(2층) 대강의실
주제: 관계 속에서 자라는 나
-대상관계이론과 정신적 성숙-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9353-0345

재속맨발가르멜회 지망기 모집
첫째 주일 (010)5585-1128
첫째주 월요일 (010)8018-2008
넷째 주일 (010)2867-2719
넷째주 월요일 (010)6508-3404
대상: 만 19~55세 / 모집: ~27년 3월

바오로딸 편집장 특강
일정: 11.21(토) 15:00~16:30
주제: 고백록에 깃든 하느님 그리고 나
강사: 박은화 수녀 / 무료
신청: (010) 6681-5185 / 선착순 마감

팻 수녀와 zoom 영어 기도 모임
일시: 첫째, 셋째 금요일 20:30~21:30
대상: 20~45세 미혼 여성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010)9353-1773

2027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신학과정
원서: 11.9(월)~2027.2.19(금)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4권 교재로 학습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양산 영성의 집)
524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기간: 11.20(금) 18:00~22(일) 17:00 / 20만원
장소: 양산 영성의집, (055)382-9465
*최소 인원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천교구 50주년 성령대회
일시: 11.14(토) 9:00~17:00
장소: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강당
내용: 강의, 치유기도회, 안수식, 미사
문의: (032)761-6301 / (010)2857-3430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7(월)~18(금)
전형일: 2027.1.8(금)
전공: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문의: (02)740-9876

2027 노비따스음악중고 학생 모집
기간: 충원시까지
모집: 고등학교 1학년~2학년,
중학교 2학년~3학년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 학교 홈페이지(novitas-s.goegp.kr) 참고

교구 | 대리구 알림

11월 예비신학교 전체 모임
일시: 11.15(일) 14:00
장소: 1-3대리구_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_(포항)4대리구청, (경주)황성성당
5대리구_5대리구청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11월 임신부 축복미사
일시: 11.13(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본관 3층 소강의실
대상: 임신부 (매월 참석 가능)
진행: 기도모임 및 축복 미사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군위묘원 위령성월 미사 안내
기간: ~11.8(전대사기간)까지 매일 11:00
11월 매주 토요일·주일 11:00
장소: 묘원성당
문의: 묘원사무실, (054)382-0168

영천성당 묘원 봉안담 분양(영원한천국) 분양 안내
장소: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77
구분: 부부단, 개인단
문의: (054)338-3381

상인성당 사무원 채용(PC 활용 필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sangin235@hanmail.net

기관 | 단체 | 기타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발성법, 합창교실, 캘리그라피, 제대꽃꽂이, 피아노, 성인 모래놀이치료, 가톨릭 미술의 이해, 가야금 성가연주, 성가반주 오르간, 가곡과 성가, 유화, 사범자격과정 꽃꽂이 / 신청: 254-6115

빠스카교화복지회 생활지도사 채용
마감: 11.30(월)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pa9722664@hanmail.net
문의: (054)972-2664

성모솔숲마을 조리원 채용
대상: 55세~65세
근무시간: 주 3.5~5일(주40시간)
근무조건: 출퇴근(기숙사 이용 가능)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054)373-3955 / (010)3209-3955

2027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순번추첨결과: 11.16(월)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주보광고접수: 11.19(목)
교구청 본관 4층 중회의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11월 9일(월) ~ 11월 14일(토) 6:50, 16:50, 23:50 김창교(루카) 신부

병·의원 마케팅
N 상위노출·플레이스·광고심의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디딤애드 김난영(에스텔) 1544-4080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DAEGU CATHOLIC UNIV. CHILGOK CATHOLIC HOSPITAL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간 운영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사,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YOU LIM EXPRESS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가람소방방재(주) (주)가람이엔지
전문소방시설 점검 및 공사
기계설비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053)288-3260 / 010-4245-0507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양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 경 임 (아 네 스)

경일신경과·내과
전문의 : 신경과 7인/내과 3인/영상의 1인
• 치매 · 파킨슨병 · 뇌졸중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3T)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대성빌딩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42 (죽전역 3번 출구)
대표원장 이세원(루까) 053-571-0075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무료전화 080-053-1000

일월온수 한일탄소매트 소형 가전
소금열좌욕기 게르마늄옥매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대구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40호
혼마, 국산채 최대50% 대여/무료레슨
판테온 파크골프

DO KIM 도앤김연합내과 INTERNAL MEDICINE
신장내과 전문의 혈액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